

투어 번호
LKVHVF2HK2

# 경치 좋은 세렌디브(11일)

10일 · 9박 |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

*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*

## 이 체험 소개

이 11일 투어는 문화 삼각지대에서 남부 해안까지 이어지며, 담불라의 사원 유적지,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산악 지역, 엘라 고지, 야라 국립공원, 그리고 갈레와 네곰보의 해안 도시들을 포함합니다. 여행은 기사 겸 가이드가 있는 개인 차량으로 진행되므로, 매일 지역 간 이동과 경로를 따라 사원, 정원, 플랜테이션, 공원에서의 정류를 결합합니다.

주요 명소는 시기리야 바위 요새, 캔디의 성스러운 치아 사원, 누와라엘리야 근처의 차 플랜테이션과 호튼 평원, 엘라 주변의 하이킹 트레일과 다리, 야라 국립공원을 통한 사파리 드라이브, 그리고 갈레의 네덜란드 요새입니다. 경로는 또한 북동 해안의 힌두교 사원과 비둘기 섬 산호초, 그리고 출발 전 콜롬보의 랜드마크들을 포함합니다.

속도는 짧은 도시 체류와 담불라, 누와라엘리야, 야라에서의 2박 숙박을 혼합하여, 끊임없는 짐 풀기 없이 각 지역을 탐험할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, 캔디, 엘라, 갈레, 네곰보에서의 더 짧은 1박 숙박은 지역 간 여행을 계속 진행합니다.




## 일별 여행 일정

## Day 1 담불라 (1~2일차)

담불라를 거점으로 이틀간 문화삼각지와 북동부 해안을 따라 더 먼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봅니다.



### 문네스와람 사원

적어도 서기 1000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역의 중요한 힌두 사원 단지로, 신화 속에서 라마야나와 그 영웅왕 라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지역에 있는 시바 신을 모시는 다섯 개의 고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.

Leon Meerson · CC BY-SA 2.0



### 코네스와람 사원

인도의 시인-성자들이 칭송한 고대 사원으로, 그 역사를 담은 벽화와 기원전 15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당이 기원전 400년경에 세워진 본전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참배했다고 전해지는 라바나 왕의 거대한 석상도 세워져 있습니다.

Shamli071 · CC BY-SA 3.0



###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

작은 섬과 큰 섬, 두 개의 피전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바위 비둘기가 번식하며, 다양한 산호 종류와 해양 생물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

AntanO · CC BY-SA 4.0

## Day 3 담불라 → 캔디

캔디로 가는 길에 시기리야 암반 요새와 향신료 정원을 둘러보고, 저녁에는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합니다.



### 시기리야 암반 요새

5세기에 카샤파 왕이 통치했던 암반 요새로,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장식된 입구를 통해 들어갑니다. 오르는 길에는 유명한 벽화와 계단식 정원,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, 그리고 정상의 궁전 유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.

Wrobell1 · CC BY-SA 3.0



### 향신료 정원

고수, 칠리, 계피, 카다멈, 육두구 등을 재배하는 향신료 및 약초 정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본 후, 로티와 커리 파우더 같은 스리랑카 요리를 만드는 전통 요리 시범을 관람합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

### 캔디 전통 문화 공연

불 춤꾼, 검 춤꾼, 그리고 드럼 연주에 맞춰 공연하는 캔디 전통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한 시간 분량의 스리랑카 춤과 공연 전통을 소개하는 공연입니다.

Arian Zwegers · CC BY 2.0

## Day 4 누와라엘리야 (4~5일차)

누와라엘리야와 그 주변을 둘러보는 이틀간의 일정으로, 가는 길에 불치사를 먼저 방문한 뒤 차 재배 지역, 호튼 플레인스, 그리고 누와라엘리야 시내를 둘러봅니다.



### 불치사

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건립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, 화려하게 그려진 홀과 조각된 기둥, 금박을 입힌 불상들이 있습니다.

A.Savin · FAL

### 차 농장

1824년 영국인들이 처음 섬에 들여온 차나무와 1852년부터 제임스 테일러가 조성한 상업 농장에서 시작된 실론티의 생산 과정을 보기 위해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합니다.



### 호튼 플레인스

오히야에 위치한 고산 초원과 구름숲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, 월드 엔드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베이커 폭포의 물보라를 감상할 수 있으며, 토종 야생동물을 관찰할 기회도 있습니다.

Faslan at en.wikipedia · CC BY-SA 3.0



### 누와라엘리야

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주요 휴양지였던 고지대 마을로, 거리를 따라 늘어선 코티지와 빌라, 저택들,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, 퀸 빅토리아 공원, 그리고 그레고리 호수 주변을 둘러봅니다.

Abdul malik77 · CC BY-SA 4.0

## Day 6 누와라엘리야 → 엘라

여정은 남동쪽으로 계속되어 차밭과 구름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엘라로 이어집니다.



### 엘라

차밭과 바위 산길을 따라 걸으면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이 펼쳐지며, 이후 나인 아치 브리지를 건너 루프형 철로가 있는 데모다라 기차역까지 걸어갑니다.

Dan arndt · CC BY-SA 4.0

## Day 7 얄라 (7~8일차)

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인 얄라 국립공원 인근 해안 지대에서 이틀을 보내며, 다양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사파리 드라이브를 즐깁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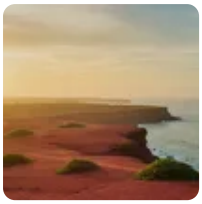
### 얄라 국립공원

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사파리로, 스리랑카 표범, 물소, 늘보곰, 코끼리 무리를 비롯한 다양한 포유류와 조류, 파충류, 어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.

Ranmith Welikala · CC BY-SA 4.0

## Day 9 갈레

해안을 따라 갈레로 여정을 이어가며, 더치 포트에 도착하기 전 라마야나 전설과 관련된 두 곳의 명소를 둘러봅니다.



### 우상고다 해변

유독성 중금속을 포함한 사문암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해안 지대로, 특정 식물만이 이곳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.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불에 탄 듯한 모습은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, 그리고 과거 라바나 왕의 마차가 내렸던 장소였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

### 루마사라

갈레 동쪽에 위치한 언덕으로, 정상에는 하얀 불교 불탑이 세워져 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하누만이 떨어뜨린 드로나기리 산의 한 조각이라고 하며, 시타가 랑카에 머물렀던 곳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

### 갈레

1663년부터 네덜란드인들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곶에 건설한 요새 도시로, 성벽과 거리를 따라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남아 있으며,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Rovin Shanila · CC BY-SA 4.0

## Day 10 갈레 → 네곰보

마지막 날은 네곰보를 거점으로 하며, 출발 전 콜롬보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볼 시간을 갖습니다.



### 콜롬보

옛 등대, 옛 국회의사당, 갈레 페이스 호텔, 갈레 페이스 그린, 강가라마 사원, 국립 박물관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, 독립 광장과 레이스 코스 주변의 상점들도 살펴봅니다.

Gihanud2001 · CC0

### 출발

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발합니다.

# 포함 사항

**포함**

-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,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.
- Service of an English-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.
-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.

**미포함**

-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.
-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.
- Chauffeur Guide's Accommodation.
- Expenses of personal nature.
- Visa and Related Expenses.
- Tips & Portages.